

구경만 하는 관광은 그만... 광양시,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 메카로...매화축제, 체험·야간 콘텐츠 강화
백운산·구봉산·섬진강 권역별 특화 개발 광양형 관광 허브 조성

광양시가 새해를 맞아 '일상이 관광이 되는 도시, 다시 찾고 싶은 광양' 실현을 목표로 관광도시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산업·문화·자연 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권역별 특화 개발과 관광 인프라 고도화를 중심으로 관광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순 방문 중심의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 머무르고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꾀한다.

특히 구봉산 관광 연계시설과 체험형 조형물 조성,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 메카 조성, 광양을 미디어아트 관광 명소화 등 주요 관광사업을 조속히 완공해 권역을 잇는 광양형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양시는 관광 콘텐츠를 기존의 관람 중심에서 체험과 참여 중심으로 확장한다.

광양매화축제는 체험·야간·연계 콘텐츠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삼화섬과 해비치로를 잇는 '달빛365' 야간관광 사업을 통해 사계절 관광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윤동주 테마 관광 인센티브 지원,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 아이언아트시티 관광 브랜드 구축 등을 통해 관광자원을 권역별로 정비하고, 광양만의 관광 서사를 하나의 브랜드로 집약해 나간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광양 K-POP 페스티벌을 비롯한 대형 공연·이벤트 유치와 내·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을 병행하고, 2026년 전라남도 행복여향활동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백운산·구봉산·섬진강으로 이어지는 권역별 특화 개발을 통해 관광 거점을 입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양형 관광 허브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공중하강 체험시설 진입도로, 접동마을-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 등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접근성과 안전성 개선을 통해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박차를 가



광양시가 올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기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양 매화마을 전경.

(광양시 전경)

한다.

이와 함께 관광 안내 체계 정비와 문화관광해설사·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지 환경 관리 등을 통해 관광 서비스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해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

관광객이 직접 미션을 수행하는 광양 관광 미션투어를 운영해 관광 경험이 공유·확산되는 구조를 만

들고, 영향력 있는 콘텐츠 생산자를 활용한 제3기G-관광마케터 운영을 통해 광양관광의 매력을 온라인·모바일 채널로 효과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장애인까지 확대

5개분야 28개 서비스 제공...우리동네 구강주치의 신규 추진

여수시가 의료·요양·돌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전남에서 유일하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예산지원형 지자체(전국 12개소)로 선정돼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5개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사업 목표 인원(1366명)을 초과한 1554명에게 일상생활 돌봄 및 방문의료지원 등 통

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통합돌봄사업의 전국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수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쌓은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 더욱 힘을 계속한다.

특히 올해는 '우리동네 구강주치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구강 건강 교육과 구강 관리 물품을 지원하는 등 예방적 의료지원 또

한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조사와 통합판정을 거쳐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26년 통합돌봄사업 확대를 통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통합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농경지 복원 했더니 흑두루미 날아와 ‘둥지’

순천시, 토지 매입해 서식환경 개선
2200여마리 새로 유입돼 월동
방문객, 근거리 관찰하며 새 경험

순천시가 지난 8일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 인근 농경지 복원지에 흑두루미 2200마리가 들어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과거 관행농업이 이뤄지던 농경지로 순천시는 2009년부터 순천만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 매입을 추진해 왔다. 장기간 매입이 지연됐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거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농경지를 지난해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토지 매입 이후 해당 부지를 신속히 복원했으며, 그 결과 흑두루미가 대규모로 유입돼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특히 많은 탐방객이 찾는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에서 흑두루미의 먹이활동을 관찰할 수 있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탐조대 인근 맨발걷기 코스인 랍사르길 주변에서도 흑두루미가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탐방객들은 흑두루미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순천만의 서식 안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 인근 농경지 복원지에 흑두루미 2200마리가 들어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정성과 복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어진 토지 매입과 복원 노력의 결실로 이제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에서도 흑두루미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시민과 탐방객이 갈대숲을 걸으며 자연의

섬과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순천만의 철새 서식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순천만습지에는 흑두루미 7567마리가 도래해 월동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로컬 제품 판로 확대
2월20일까지 플라마켓 참가자 모집

구례군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제품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로컬 플라마켓'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로컬 플라마켓은 3월부터 11월까지 봄·가을 시즌을 중심으로 서시전체육공원 등에서 연 10회 내외로 개최되며, 구례 곶·농특산물·식품·식음료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로컬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참가자 모집은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로 2월20일까지 진행되며 구례군 소재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50개팀 내외를 선발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순천경찰, 치안 성과 12년 연속 'S등급'

범죄 예방·현장 대응·교통 안전 등 전국 259곳 중 1위

순천경찰서가 전라남도경찰청 주관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1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전남청 1위)'을 달성했다

치안종합성과평가는 범죄 예방, 현장 대응, 교통 안전, 수사 역량, 주민 체감 안전도 등 경찰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해 전국 259개 경찰서 중 1위 치안 성과 우수경찰관서로 선정되어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주민 밀착형 경찰 활동을 강

화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해 왔다.

김대원 경찰서장은"12년 연속 S등급(전남청 내 1위) 달성은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현장 직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통해 안전한 순천, 행복한 시민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더 나은 동네 만들기’ 아이디어 찾아요

보성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연중 시행

보성군이 2027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연중 시행한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보성군은 보다 폭넓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모 기간을 연중 상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보성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보성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와 임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제외 대상 사업을 제외한 모든 제안 참여자에게 보성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사업에는 부서 검토와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도 차등 제공할 예정이다.

제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정

보 > '예산편성에 바란다'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게시판에 등록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군청 기획예산실 예산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 사업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담당 부서의 타당성 및 수혜도 검토를 거쳐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단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제안은 2028년도 예산 반영 대상으로 검토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더 편리하고 활기차게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